영광 염산중서 '바다 가꿈' 연계 특별 강연 성료



영광 염산중학교에서 '바다가꿈 프로젝트' 와 연계한 특별 강연이 열렸다. 〈사진〉

이날 강사로 나선 장문석 대표는 '영광에 귀 촌, 영광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주제로 학생 들에게 귀어귀촌의 가치와 해양자원의 미래 가 능성을 알렸다. '함께해요 바다가꿈'이라는 구 호 아래 학생들은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지역과의 연결을 다졌다.

이번 특별 강연은 영광의 청소년들이 해양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바다가꿈 프로젝트' 선정을 위 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교육 현 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형 해양교육의 새로 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

전남도의회, 정책회의서 부서별 주요 현안 논의



전남도의회는 13일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사 무처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이번 회의는 10월 이후 부서별 중점 추진상 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일정 과 더불어 최근 전남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논 란이 된 공무국외출장 운영 절차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를 통해 관련 조례와 내부 지 침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 이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앞으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국외 출장은 사전 심사부터 사후 보고, 공 무국외출장 심사 등 전 과정을 강화하라"고 지 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산조경, 독거가정에 사랑의 백미 기탁



광주보훈청,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4일 ㈜비에스코퍼레이션(대표허상범)과 '2025 국 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우수 기업 인증' 현판 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기 관 등에서 다수의 제대군인을 채용한 곳에 국

가보훈부에서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서는 총 3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허상범 대표는 "앞으로도 제대군인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다산조경은 최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중장년 독거가정을 위해 사랑의 백미 10kg 10 포를 기탁했다. 〈사진〉

㈜다산조경은 2008년 설립 이후 나주시 지역 내 조경 식재와 시설물 설치 공사를 주로 수행 해 온 기업으로 매년 명절마다 백미와 성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 장서고 있다.

정재금 다산조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전남바이오진흥원 서동삼 바이오의약본부장 취임



서동삼〈사진〉 박사는 최근 전남바이 오진흥원 내 바이오의약본부장으로 취 임했다.

서 신임 본부장은 동물분자세포유전 학 박사(서울대)로 고려대·동국대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오다 ㈜엠디뮨 CTO, 세원셀론텍㈜ 재생의학본부장 및 중앙 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전남바이오진흥원 관계자는 "이번에 영입한 서 박사는 22년 이상 세포치료제 및 의료기기 개발·산업화 분야에서 세포치료 제 제조 시스템 개발, 연부조직 재생기술, 생체재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를 낸 전문가로, 전남지역 바이오의약 분 야 연구개발과 산업화 추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암생존자 지원인력 역량강화 교육



화순전남대병원이 광주전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광 주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최근 '2025년 암생존자 정신건강 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광주 5개구 기 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실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진 행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와 상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10 사랑의 가족(재)	10 셀럽병사의 비밀(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00 영민씨와 대단한 친구들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엄마를 부탁해(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랄라 행복한 곰돌이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림 컴퍼니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친밀한 리플리 스페셜	25 베베핀(재) 45 한글, 목소리로 피어나다 55 2시 뉴스 외전	00 고향이 보인다
2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전국을 달린다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주디세이(재)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탑클래스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친밀한 리플리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개는 훌륭하다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그것이 알고싶다 특별판 캄보디아 범죄도시, 88일의 추적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0 은수 좋은 날(재)	50 MBC 뉴스 25	50 네모세모 스페셜
12	00 KBS 중계석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35 아이 러브 스포츠	10 이 강에는 달이 흐른다 프리미어 25 리얼 라이브	20 꿀잼남도 스페셜

05:00 왕초보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7:0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7:30 엄마까투리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8:50 슈퍼윙스 슈퍼콤보

06:10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화산 트레일 하산선, 박리를 즐기는 번)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45 레인보우 버블젬

08:00 딩동댕 딩동댕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EBS1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재)

16:3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7:00 페파피그

17:10 레인보우 버블젬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재) 17:5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봉(재) 18:10 EBS 뉴스

18:30 PD로그(재)

19:20 고향민국

19:5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재)

20:40 세계테마기행

〈떠나 볼까? 요즘 뜨는 슬로베니아

시간이 빚어낸 선물〉

21:35 한국기행

〈할매, 밥 됩니까2 4부 영자와 복순〉

21:55 왔다! 내 손주 22:45 EBS 다큐프라임(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 010-9790-8237





子

36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겠다. 48년 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니라. 60년생 득이 되리라고 여겨 왔던 것이 짐이 될 수도 있다. 72년생 부담스 러워해 왔던 짐을 덜게 될 것이다. 84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96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54



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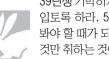
37년생 확신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49년 생 전후 사정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61년생 낌 새를 무시하지 말고 저변을 돌아 보는 것이 기반을 튼튼히 하리라. 73년생 속시원한 것 보다 원만한 것이 가장 무난하 리라. 85년생 재난은 무지와 방심에서 비롯된다. 97년생 지 금 손질함이 가장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58



寅

卯

38년생 원리원칙만을 고수할 일이 아니니 융통성 있는 수완 이 요구된다. 50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 려 말라. 62년생 형세에 맞는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 점이다. 74년생 겉모습까지 신경 썼을 때 제값을 할 것이다. 86년생 다수인과 만남의 기쁨이 클 것이다. 98년생 생산적 인 관계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02,84



39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세이니 주저하지 말고 본궤도로 진 입토록 하라. 51년생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되짚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63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87년 생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솔선수범한다면 효과는 배가되리 라. 99년생 절호의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37,70

40년생 지금은 급한 형세이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무조건



수용하고 볼 일이다. 52년생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과실 을 최소화하리라. 64년생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속시원하 게 알게 된다. 76년생 희비가 쌍곡선을 그리며 질주하는 위 상이다. 88년생 보완만 한다면 달성하리라. 00년생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된다. 행운의 숫자: 34,83



41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게 될 것 이다. 53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 다. 65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 만사형통하리라. 77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89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하였던 바이다. 01년생 한번 시작하면 술 술 풀려 나가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14,76



10월 16일 (음 8월 25일 戊午)

42년생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명확한 의 사표시를 꼭 해둘 필요가 있다. 54년생 미리 대안을 마련하 는 것이 옳다. 66년생 정교함과 섬세함이 성과를 드높인다. 78년생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커서 낙심하겠다. 90년생 중 용으로써 삼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02년생 두꺼운 얼 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4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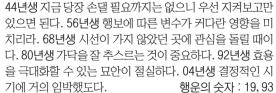
43년생 기존 상황을 재편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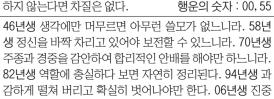
申

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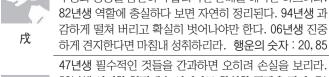
다. 55년생 묵묵히 진행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두게 된 다. 67년생 확실한 자기 주관과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79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노력이 절실한 판국이로다. 91년생 아예 아니함만 백번 못 하느니라. 03년생 단번에 성 과가 나타나기는 힘들겠다. 행운의 숫자 : 29,60



45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 라. 57년생 작은 일에 매달리다 보면 큰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69년생 의외의 결과물 앞에서 매우 기뻐하는 태 양이다. 81년생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롭게 빛나리라. 93년 생 바야흐로 길운이 한창 피어나는 때이니라. 05년생 과신



47년생 필수적인 것들을 간과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리라. 59년생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확실한 주관을 갖자. 71 년생 도모하던 바는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83년생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95년생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게 되리라. 07년생 갈 구하여 왔던 바를 이룬다. 행운의 숫자: 44,59



亥